

사회적경제와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전



최혁진 |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정책위원장

1844년 12월 추운 겨울 어느 날, 영국 로치데일 지방 28명의 노동자들은 각자 1파운드씩을 공동출자하여 자신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을 공동구매할 작은 점포를 개설하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근대적인 협동조합이 그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당시 로치데일 사람들은 오랜 대기근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삶의 희망을 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암울한 현실에 굴복하지 않았고 협동조합기업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개척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기업의 운영을 위하여 몇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모두 함께 출자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자본을 조성할 것, 1인 1표의 원칙에 기초하여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기업을 운영할 것, 그리고 수익은 공정하게 배분하고 일부는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재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비록 작은 식료품 가게를 개점한 것에 불과하였지만, 로치데일의 노동자들은 큰 꿈과 포부를 지녔습니다. 사업을 조금씩 성장시켜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주택을 설립하는 일도 해보자고 하였고, 실직 상태의 동료 노동자들을 위해 일자리도 마련하자고 계획하였습니다. 심지어 경작지를 마련해서 빈곤한 지역주민들에게 농업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자고 하였고, 그 모든 일들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협동의 금융도 설립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자신들의 마을 전체를 협동조합 기업을 통해 부흥시켜 나가자고 결의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로치데일 노동자들의 꿈은 유럽사회 전역으로 퍼져나가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렴하고 안전한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주택협동조합을 만들었고, 덴마크의 농민들은 농업생산자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세계 최고수준의 농업환경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독일의 농민들은 고리채를 극복하기 위하여 금융협동조합을 만들었고 프랑스의 실직 노동자들은 노동자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자신들의 고용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나갔습니다. 실직한 동료들에 대한 배려심은 글로벌 자본주의 시대에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새로운 모델이 되어 사회적기업가들의 이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대안사회를 모색하는 수많은 이론가들은 이들의 신념에 찬 도전을 사회적경제라고 부르기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만일 로치데일 노동자들의 꿈과 이상, 그리고 무모한 도전이 없었다면 아마도 우리는 사회적경제란 용어를 감히 사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경제활동의 목표는 사람과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을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개선해나가는 것이어야 한다는 신념, 그리고 기업의 목표는 이윤극대화가 아니라 기업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지역사회의 건강한 성장이라는 새롭고도 상식적인 가치를 그들은 구체적인 형태로 실현해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는 경제활동에 민주주의의 이상을 결합하고 기업운영에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가치를 담아내는 가슴 뛰는 도전에 나설 수 있는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사회적경제는 최근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해있습니다. 그것은 경쟁과 효율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인간의 얼굴마저 상실해버린 글로벌 자본주의의 거대한 광풍에 맞서 어떻게 하면 따뜻한 심장을 지닌 사회를 창조해나갈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국경을 초월하여 더욱 거대해진 자본은 단기간에 보다 많은 이윤을 축적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삶터인 지역사회 의 작은 경제적 기반들을 빠른 속도로 허물고 있습니다. 때문에 경제는 그 자체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궁핍해지고 일자리는 점점 줄어드는 납득하기 어려운 현실이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국제화된 거대기업들의 문어발식 확장은 그나마 밑바닥 사람들의 숨 쉴 자리마저 빼앗고 있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얇은 나무가 바람을 견딜 수는 없는 법입니다.



다. 서민경제가 무너지고서 어찌 거대기업이 또한 국가경제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2008년의 미국발 금융위기와 그 이후 계속되는 세계경제의 위기는 이러한 상식을 그대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가 경제사회분야 전체의 새로운 구조혁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이 독특한 경제사회적 환경과 그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들은 전통적인 방식의 정책적 처방으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낭만적인 사고는 이미 현실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정부의 공공재정 지출을 통해 경기부양을 해보겠다는 방법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미국정부는 1조 달러 이상의 공공재정을 지출했지만 결국 미국 거대기업들의 현금 보유량이 불과 1년 사이에 1조 달러 이상 늘어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시장화되었고, 그러한 가운데 이미 거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자본집중도가 대단히 높아졌기에 정부가 돈을 풀어도 여전히 서민들에겐 돈이 돌지 않는 세상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워렌 버핏' 과 같은 억만장자들의 자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역시 일시적인 처방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역단위에서부터 현재의 시장구조를 혁신해나가야 합니다. 먼저 외부로부터 기업을 유치하기만 하면 지역이 살아날 것이란 맹목적인 사고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지역사회에 좋은 기업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보다 우선 지역의 자원들을 어떻게 통합하여 지역기여형 기업들을 만들어낼 것인가에서 고민을 시작해야 합니다. 공공재정 지출을 늘리겠다는 행정편의적 사고에서 한걸음 나아가 '과연 누가 공공재정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공적인 비즈니스를 수행할 것인가' 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것이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혁신입니다.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그리고 마을기업은 그러한 관점 위에서 강력한 잠재력과 가능성으로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가치와 실천의 혁신은 비단 공공부문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에서도 글로벌 자본주의 시대에 대응하여 지역을 새롭게 디자인할 다양한 전략들이 나타나길 희망합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수많은 사회적 문제들은 대부분 경제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라는 관점은 시민사회에서 새롭게 해석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대단히 통합적이고 거시적인 실천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실행하니까 사회적기업을 하고 또 마을기업 지원하니까 마을기업에 줄서고 하는 방식으로는 지역을 살려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책 아젠다 중심의 시민운동이니까 경제적인 사업에는 관심이 없다' 라는 식의 태도로도 지금 우리가 직면한 위기의 시대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시민사회운동가들이 지역사회의 미래에 대한 공동의 비전과 과제를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네트워크하며 경제적이며 동시에 사회적인 사업들을 성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몬드라곤 협동조합 그룹의 창시자인 호세마리아 신부의 '모든 경제적 혁명은 반드시 도덕적이어야 하며, 동시에 도덕적이고 정신적인 변혁을 꿈꾸는 사람들은 반드시 참여하는 사람들의 경제적 변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라는 충고를 깊이 성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충남이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아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를 건립한 것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과 지역의 수많은 비영리조직들, 그리고 시민들의 가슴 속에 숨어있는 무궁무진한 잠재력들이 결합된다면 저는 인간의 얼굴을 한 새로운 사회의 실현이 결코 허상이 아님을 머지않아 발견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도전이 지역의 미래를 바꾸어낼 것이니까요.